**천연화장품을 만들다**

외주구매팀

김자영주임

한낮 더위와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찾아오는 여름날에 천연 화장품 만들기 체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모 방송에서 여자 연예인들이 화학제품 없이 살기 체험을 하면서 얼굴에 바를 것이 없어 찾던 중 천연으로 직접 화장품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그 과정이 무척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오다니……

이것저것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욕심과 정말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기분 좋은 설레임을 가지고 양재동에 위치한 교육장소인 (주)에코사이언스로 출발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진한 라벤더향의 디퓨져가 기분 좋게 풍겨왔고, 이어 좁은 복도를 따라 학교 다닐 때나 볼 수 있을법한 실험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방으로 들어가니, 테이블 위에는 이미 필요한 재료들과 저울을 비롯한 여러가지 실험(?)기구들이 자리하고 있더군요. 겉으로 보기엔 꼭 화학약품들과 같이 생겨서 이것이 진정 천연인가 의심까지 들기 시작했는데, 하나 둘 열어서 향을 맡으면서 제작에 들어가니 그 의심이 눈녹듯 사라지더군요.

천연화장품을 만들기 전, 친절한 강사님의 간략한 천연제품과 자외선관련 강의로부터 시작된 체험시간에는 그 동안 수치로만 알고 있는 여러가지 화장품의 표시 방법들과 효능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들어본 자외선은 UV-A, B, C가 있으며, 자외선을 살균등과 같은 좋은 효과도 있지만, 익히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주름과 기미 등의 피부노화를 촉진하는 요소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뜨거운 여름의 경우, 피부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콜라겐이 파괴가 심화되는데, 이때 자외선에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바로 자외선 차단 로션과 같은 화장품입니다.

자외선 차단을 하는 화장품을 보면 흔히들 SPF라는 영문과 수치가 나오는데, 이 SPF가 바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수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SPF 1 은 15분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선크림을 바르는 팁을 드리자면, 보통 선크림은 피부 표피 각질층 정도 스며들게 발라야 하기 때문에 흡수를 위해 30분전, 500원 동전 크기만큼, 톡톡 두들겨서 바르는 것이 중요하고 2~3시간 간격으로 덧발라 주며, 어깨 목뒤, 팔, 다리도 바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선크림은 SPF15정도면 95%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저는 수치가 높은 게 좋은 줄 알고 무조건 높은걸 골랐는데 그건 화학약품이 더 첨가 된 것 일뿐 별 차이가 없고 땀이나 외부에 잘 지워지기 때문에 덧바르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화장은 바르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니, 클렌징을 잘해줘야 하는 건 기본이구요.

이번 체험시간에 만들기로 한 것은 벌써부터 뜨거운 햇살에서 피부를 지켜줄 시작된 선크림, 요즘 효모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피테라 에센스, 그리고 모기등과 같은 벌레퇴치를 위한 스프레이 세 가지 이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치 요리를 만들 듯 레시피 속의 용량대로 저울에 정확하게 넣고, 녹이고, 섞어서 용기에 넣으면 끝이 나는 어렵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래도 혹여 조금이라도 용량을 벗어날까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한 방울 한 방울 정성스럽게 넣어가며 만든 후, 마지막 용기에 넣는 순간.. 이런……. 생각과 달리 선크림의 제형은 묵직했고 용기 넣기가 쉽지 않더군요.

더구나, 여자 두 명 있던 저희 테이블과는 달리 남자 세분 있던 옆테이블, 처음에 진도가 광속으로 나가시더니 용기에 담기 실패와 더불어 용량 분배 실패로 결국 강사분에게 다시 제작하기를 요청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테이블 가득 쌓인 휴지는 사람 피부에 바를 크림을 잔뜩 머금고 있는 상태였구요. 그래도 인내심을 발휘하신 친절한 강사님이 흔쾌히 수락해주셔서 앞서 진행한 프로그램을 다시 해서 결국 모두 공평하게 한 통씩 선크림을 나눠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옆테이블에서 웃음소리와 탄식소리가 번갈아 가며 나는 제작 시간동안, 강사님께서는 두번째로 만들 효모 에센스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만드는 에센스의 재료에 효모 액이 있는데 원가가 비싸긴 하지만 의외로 싸다는 것, 간단한 레시피를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화장품 뒷면을 보면 엄청나게 긴 원재료 명들이 다 첨가물 이고 방부제라는 걸 알게 된 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특히나 외국에서 수입되는 제품들은 대부분 긴 유통과정으로 인해 이미 제품화 된지 6개월이 지나고 있는 거라 더욱 더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렴하게 판매하는 아울렛의 화장품들은… 더 생각하기 싫으네요.

사실 체험은 앞의 선크림과 효모에센스 두가지였지만, 체험을 진행한 웹진 담당자와 강사님이 협의를 하셔서 더 만들게 된 것이 바로 벌레퇴치를 위한 스프레이였습니다.

아무래도 체험코너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가정이 있고, 아기들이 있다보니, 본격적인 여름에 가장 걱정이 되는 모기와 벌레들의 공격(?)에서 조금이라도 안전한 퇴치제를 고민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앞서 강사님이 설명해주신 산림욕에 좋다는 피톤치드를 베이스로 벌레퇴치 스프레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피톤치드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피로를 풀어주는 향이지만, 사실 피톤치드는 나무가 벌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발산하는 향과 음이온을 포함한 강력한 보호물질로 아이러니하게 그게 사람들에게는 좋은 성분이라고 하네요.

시중에 나와 있는 벌레 퇴치제는 아무래도 화학성분으로 아이한테 사용하기에는 꺼림칙한 면이 없지 않았는데 우리가 만든 스프레이 방향제는 무수에탄올, 정제수, 그리고 아로마 오일 몇가지가 전부였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없는 엄마 아빠표 안심 스프레이라고 할 수 있죠.

체험을 마치면서 예전엔 천연, 오가닉 말만 들어가도 비싸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만 뒤져봐도 이런 천연 재료들을 구할 수 있었고 레시피가 생각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충분히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 만든 화장품과 스프레이에 친절한 강사님이 선물해주신 천연비누까지 하나씩 챙겨들고 기분 좋은 라벤더 향과 함께 건물을 나서니 벌써 퇴근시간이더군요.

일주일의 숙성기간을 거쳐서 직접 만든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아마도 또 만들기에 도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스처러----------------------------

천연화장품 만들기 체험 정보

에코스 아카데미 (<http://www.ecoce.co.kr>)

--------------------------------------------------